

한국 종합 2위 어려울 듯

日 남은 경기 金 추가 유력

한국의 동계아시안게임 3회 연속 종합 2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일 제6회 창춘(長春) 동계아시안게임 개회식 남북한 공동입장 때 한국 기수를 맡았던 여자 알파인 스키 선수 오재은(24·국민대)이 동메달을 따는데 그쳤다. 오재은은 2일 중국 지린(吉林)성 지린시 베이다후(北大湖)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여자 대회전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27초77를 기록, 일본의 가토 지카(1분24초83)와 하나오카 모에(1분25초78)에 이어 3위를 차지

했다. 이로써 이번 대회 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땀던 오재은은 지난 2003년 아오모리 대회에 이어 동계아시안게임 2회 연속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국은 이날 오후 8시 현재 금메달 9개(은 12, 동 10)로 일본(금 9, 은 6, 동 11)에 앞서 2위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대회 마지막 날인 3일 강민혁(26·용평리조트)이 출전하는 스키 남자 대회전 밖에 없지만 일본은 피겨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 등에서 금메달이 유력해 2위 수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오후 8시 현재 국가별 메달순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17	15	18
2	한국	9	12	10
3	일본	9	6	11
4	카자흐스탄	3	5	6
5	홍콩	0	0	1

한국이 3일 금메달을 한개 추가하더라도 일본이 피겨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금메달 1개차이로 일본에게 2위 자리를 뺏기게 된다. 다만 한국이 3일 금메달을 획득하고 일본이 피겨스케이팅이나 아이스하키에서 금메달을 1개만 추가할 경우 은메달 갯수가 많은 한국이 2위를 수성할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수영계 박태환 놓고 '진흙탕' 싸움

노민상 감독 "폭행당했다" 김봉조 위원장 "자해극이다"

노민상(51) 대한수영연맹 경영 국가대표팀 감독이 "김봉조(60) 연맹 경기력향상위원장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에 입원했다. 노민상 감독은 2일 오전 연립뉴스와 전화에서 "어제 오후 태릉선수촌 수영장에서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김봉조 위원장이 후배와 함께 찾아왔다. 코치실에 함께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를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시 돌은 박태환(18·경기고)이 올 초 국가대표 합숙훈련을 거부하고 개인훈련을 하게 된 뒤 노민상 감독이 제기했던 '제3자 개입' 음모론을 놓고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민상 감독은 "얼굴에 박치기를 당해 입안이 다 상했고 넘어진 뒤 발로 짓밟혔다. 사건 직후 경찰 112신고센터에 신고했으며 현재 태릉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아무 이유없이 맞은 만큼 고소할 생각이며 현재로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김봉조 경기력향상위원장은 폭행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증확고 후배인 노 감독이 '제3자 개입' 얘기를 하면서 나를 지목하고 있는 것 같아 모든 오해를 풀려고 찾아갔다"며 "얘기를 하던 도중 노 감독이 '당신과 무슨 얘기를 해'라고 소리치며 혼자 뒤로 넘어졌고 옆에 있던 집기에 부딪혀서 다쳤다. 노 감독이 넘어질 때 잡아줬는데 그 때 걸음이 꺾어졌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그는 "나중에 '사립살려. 나를 감금했다'고 소리치기도 해 이견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중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더욱 착잡하다. 자해극이다. 노 감독을 때린 적이 없고 경찰이 조사를 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 감독과 김 위원장 모두 현장에 있었지만 노 감독이 "일단 진단서를 받아보고 합의가 안되면 고소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철수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선수촌 훈련장에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2일 중국 지린시 베이다후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알파인스키 여자 대회전 결승에서 한국의 오재은이 폴 사이를 빠져 나오며 있다. /연립뉴스



KIA **日 전훈 캠프를 가다**

미야자키=박진표 기자



“‘방콕’·독서로 달콤한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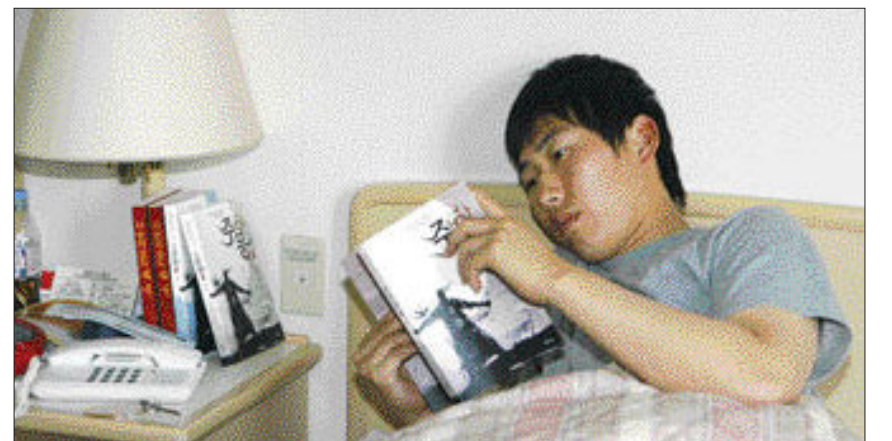
김진우·이호신은 온천 프로그램 합류 용병 서튼·에서튼 마사지로 피로 풀어

“너무 시골이라서 갈 곳이 없네.” 일본 미야자키현 휴가사에서 스프링캠프 훈련에 한창인 KIA 선수단이 2일 풀맛같은 휴식일을 맞았다. 하지만 휴가사가 인구 6만4천994명의 한적한 도시인 탓에 변변한 쇼핑센터나 위탁시설이 없어 대부분의 선수들은 숙소에서 나름대로 휴일을 즐기고 있다. 30대 중반 이상의 ‘노장’들은 속칭 ‘방콕’으로 부족한 잠을 채웠고, 신인급들은 그동안 밀린 뺨패를 하는가 하면 숙소 주변을 산책하는 등 조용한 휴일을 보냈다. 김진우(24)와 이호신(23) 등은 구단에서 마련한 온천 프로그램에 합류, 오후 한때 따뜻한 온천욕으로 그동안 쌓인 피로를 털어냈다. 용병인 서튼(34)과 에서튼(31)은 ‘웰빙형’ 스키족으로 알찬 하루를 보낸 뒤 다른 선수들에게 ‘즐거움 휴일 보내기’의 비법을 전수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동현(28)은 밤에 틀어박혀서 PMP(휴대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감독 송해성·주연 강동원)’이란 영화를 감상했고, 송산(25)과 권운민(28), 오준형(23)은 요즘 TV 드라마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주몽’등을 돌려보며 독서삼매경에 빠져 들었다. 고졸 5년차 전병두(23)는 오전내내 밀린 빨래를 처리하느라 바쁜시간을 보냈다. 전병두는 “그동안 묵혀뒀던 빨래를 몽땅 해치우고 나니 마음이 가벼다”면서 “우선 낮잠을 즐긴 뒤 시간이 되면 온천에나 다녀와야겠다”며 침대로 향했다. 하지만 삼한 일교차로 감기에 걸린 투수 문현정(24)은 아침 식사후 약을 먹고 곤한 잠에 빠져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lucky@kwangju.co.kr



일본 미야자키 스프링캠프에서 모처럼 휴식일을 맞은 투수 이동현이 2일 자신의 방에서 PMP로 한국에서 다룬받아 온 영화를 즐기고 있다.



일본 미야자키 스프링캠프에서 모처럼 휴식일을 맞은 투수 오준형이 2일 자신의 방에서 독서를 하고 있다.

베어벡호, 무한경쟁 2라운드 막 올랐다

7일 그리스전 위해 어제 영국 원정길 올라
 기온 12명의 새로 뽑힌 8명 주전도전 거세

2007년 한국 축구의 지상 과제인 아시안컵축구대회 우승을 향한 2라운드 경쟁의 막이 올랐다. 김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은 2일 오후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6위의 강호 그리스와 해해 첫 A매치(한국시간 7일 오전 5시 영국 런던)를 치러 원정길에 올랐다. 유럽과 터키에서 전지 훈련을 하고 있는 국내과는 런던 현지로 합류한다. 베어벡호는 소집 명단을 기준으로 할 때 이번이 ‘5기(期)’에 해당한다. 지난 해 8월16일 아시안컵 예선 대만전에 앞서 1기를 뽑았고, 9월 이란 대만전 때 2기, 10월 가나, 시리아전에 3기, 11월 이란 원정에 4기 멤버를 소집했다. 베어벡은 처음엔 국내파만 뽑았고 그 다음엔 해외파를 죄다 소집했다가 다시 국내파 위주로 운영했다. 이번 그리스전 소집 멤버(20명)는 부상으로 중도 하차한 김동진(제니트), 송중국(수원)이 빠지긴 했지만 그동안 실험했던 멤버

버들을 ‘종합판’으로 엮어놓은 느낌이다. 프리미어리그 삼총사가 포함됐고 독일월드컵 국내와 핵심과 아시안게임 멤버들이 ‘황금보물’ 형태로 혼합됐기 때문이다. 독일월드컵 최종 엔트리 가운데 절반인 12명이 건재하다. 하지만 새롭게 합류한 8명의 도전이 더 거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최대 격전지는 수비 라인이 될 전망이다. 이영표(보트넘), 김치곤(서울), 김치우(전남), 오범석(포항), 이강진(부산), 김진규(전남)가 펼칠 경쟁은 구도 자체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영표를 왼쪽 측면에 놓고 오른쪽에 오범석, 중앙에 김진규를 축으로 하는 시스템을 떠올려볼만 하지만 김치곤, 김치우, 이강진의 쓰임새는 베어벡의 머리를 훨씬 더 복잡하게 한다. 미드필더진은 김두현(상남), 김남일(수원), 이호(제니트)를 삼각 축으로 놓고 여러 변형을 꾀해볼 수 있다. 단 대타로 진입한 오장은(울산)이 변수다. 박지성, 이천수(울산), 염기현(전북)은 중원의 측면과 공격진을 결합할 수 있다. 공격진에는 조재진(시미즈)에 무게 중심이 간다. 소속팀에서 부침을 거듭한 설기현(레딩)이 어떤 카드로 쓰일지가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독일월드컵 대표들의 ‘수성’에 아시안게임 멤버들이 도전장을 낸 형국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창수 시즌 두번째 ‘톱10’ 노린다

PGA 투어 FBR오픈 공동 21위
 최경주·나상욱은 하위권 부진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FBR오픈에서 언더파 스코어로 무난하게 출발했다. 위창수는 2일(이하 한국시간)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스코츠데일TPC 스타디움코스(파71·7천216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

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3개,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쳤다. 7년 동안 PGA 투어 우승컵이 없는 더틀리 하트(미국)가 7언더파 64타로 단독 선두에 나선 가운데 위창수는 공동 21위에 올라 지난 주 부인인비레이셔널에서 생애 두 번째이자 시즌 첫 번째 톱 10에 진입한 상승세를 이어갈 발판을 마련했다. 10번홀에서 출발한 위창수는 13번홀(파5) 보기를 15번홀(파5) 버디로 만회한 뒤 17번홀(파4)에서 이글을 잡아내며 기세를 올

렸다. 3번홀(파5)에서도 버디를 낚은 위창수는 6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했지만 8번홀(파4)에서 다시 버디를 잡아 타수를 줄였다. 하지만 동반 출격한 ‘코리아인 브라더스’ 최경주(37·나이키골프), 나상욱(23·코오롱),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의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다. 최경주는 버디 5개를 잡아냈지만 더블보기 1개, 보기 4개를 범하면서 나상욱과 같은 10버파 72타를 쳐 공동 88위로 처졌다. 올 시즌 기대를 모으고 있는 루키 앤서니 김은 아이언 샷과 퍼트에서 난조를 보이며 2오버파 73타로 공동 107위까지 밀려 컷 통과를 걱정하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3일(토)
 ▲NBA(뉴저지-올랜도)(10:00·MBC ESPN)
 ▲대학장사씨름대회 6차대회 역사급(14:00·MBC ESPN)
 ▲V-리그(대한항공-삼성화재)(13:40·KBSN Sports), (GS칼텍스-KT&G)(16:00·KBSN Sports)

▲프로농구(SK-전지랜드)(14:50·SBS 스포츠), (오리온스-모비스)(14:50·Xports)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신한은행-신세계)(16:50·SBS스포츠, MBC ESPN)
 4일(일)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첼레스티티-레딩)(00:00·MBC ESPN)
 ▲PGA투어 FBR 오픈 3R(06:00·SBS 스포츠)
 ▲V-리그(현대캐피탈-대한항공)(13:40·KBSN Sports), (홍콩생명-GS칼텍스)

(16:00·KBSN Sports)
 ▲대학장사씨름대회 6차대회 장사급(14:00·MBC ESPN)
 ▲프로농구(삼성-KTF)(14:50·SBS스포츠, Xports), (KT&G-오리온스)(17:00·Xports)
 ▲이탈리아 세리에 A 축구(아스콜리-AC 밀란)(23:00·KBSN Sports)
 5일(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토트넘-첼레스티티)(01:00·MBC ESPN)